

西獨의 大學 總·學長 會議

朴 德 圭
(KEDI 首席研究員)

서독에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기구가 자치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서독의 대학 총·학장 회의는 연방 정부, 주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학 발전을 위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 任務

서독의 대학 총·학장 회의(공식 약칭 WRK)는 서독의 대학들이 자의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체이다. 대학교육의 고유한 임무인 연구, 교수 및 학습 그리고 자율 운영을 위하여 서베를린을 포함한 11개 주내의 모든 대학이 회원이 된다.

이 회의의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지역에 따른 특성과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로 필요한 통일성(Einheitlichkeit), 대학생의 전학 자율성(Freizügigkeit), 그리고 투과성(Durchlässigkeit, 졸업 규정 등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협의함
- 건의, 추천, 주장을 통하여 연방과 州, 입법권과 행정권의 정치적 결정에 조언하고 충고함
- 대학의 특별한 임무와 요구 그리고 대학 본래의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사회에

분명히 알려 인정받는 일 등이다.

이 임무를 위한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공 매체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체, 지속적인 안내와 의사 전달을 함
- 연방과 州, 국내 및 외국의 대학 정책에 관한 발전을 관찰, 수집, 해설, 인쇄하여 공표하고 회원 대학에 알림
- 교육 및 대학 정책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생산 체제의 조직과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대학의 기능과 임무에 최선을 다함
- 학술 단체, 학술 촉진 단체, 기관 그리고 특수화 그룹의 대학교육 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조함
- 회원 대학을 대표하여 국제 관계, 그리고 범세계적 대학 기구와 조직에 참가하고 권익을 도모하며 학술 회의 등을 주선하여 참여케 하고 이를 운영함
- 외국 대학 총·학장 회의 혹은 유사한 종류의 기관들과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상호 정보

를 교환하며 학술, 연구, 교수, 교수 교환, 학생 교환 등의 국제 교류, 조연, 제의를 하고 이를 추진하며 협조함

• 대학 제도, 학술 정책 등에 관한 도서(책, 학술지, 정기 간행물)를 자체 도서관에 수집·보관하며, 서독 총·학장 회의를 위한 기구, 자체 위원회와 회원 대학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일 등이다.

2. 内部 構造

서독 대학 총·학장 회의에는 190 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서독의 모든 대학이 회원임을 뜻한다. 대학에는 모든 종합대학교(Universitäten), 공과대학교(Technische Universitäten), 공과대학(Technische Hochschulen), 통합대학교(Gesamthochschulen), 교육대학(Pädagogische Hochschulen), 기타 학술대학, 국립 전문대학, 예술 및 음악대학, 국방대학(Universitäten der Bundeswehr), 교회 및 철학-신학대학 등이 있다,

서독 대학 총·학장 회의의 규정은 대학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차등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집단 투표(또는 복식 투표, Kuriatstimme)를 실시한다. 다음 <표 1>은 회의의 주요 의결 기구인 총회(Plenum)와 위원회(Senat)의 회원과 투표권 배분 원칙이다(1986년 12

<표 1> WRK의 총회 및 위원회 회원과 투표권 배분

그	분	회원 수	투표권 수	
			총 회	위원회
종합대학교, 공과대학, 교육대학, 통합대학		64	64	19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교육대학		8	3	1
전문대학		83	11	3
예술대학, 음악대학		25	2	1
철학-신학대학, 교회대학		7	2	1
기타		3	1	1
계		190	83	26

1) 각 대학에는 학교 운영을 위한 협의체로 '대학 운영위원회'가 있다.

월 31일 현재).

서독 대학 총·학장 회의(이하 WRK)에는 총회, 위원회, 의장단 그리고 의장(Präsident)이 있다. 의장은 1년 1회의 총회를 소집한다. 총회는 Bonn(서독의 연방 수도)시에 소재하는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대학, 학술 및 교육 정책에 관한 주제를 토의한다.

총회는 서독 대학 총·학장 회의의 상급 의결 기구이며, 회원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참석한다. 특히 교육 정책과 교육 제도의 주요 조연과 제안에 관한 사항, 의장과 부의장 선출, 재정 및 규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운영과 인사 등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총회는 반드시 학기중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대표자 회의이며, 대표자는 회원 대학을 대표한다. 州 대학 총·학장 회의 대표도 여기에 속한다. 이 대표자 회의는 연방 차원의 대학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의장은 임기 2년에 재선출될 수 있다(재임 회수 제한 없음). 의장은 총장, 학장 또는 각 대학의 대학 운영위원회의 임원¹⁾이어야 한다. 의장단에는 의장과 임기 2년의 5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부의장은 WRK의 총회에서 결정된 분과위원회의 장이 되며, 위원들은 의장에 의하여 3년간의 임기로 임명된다. WRK의 의장과 총회를 위하여 Bonn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8년이며 WRK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WRK의 조직과 규정에 의하지 않는 전공 학문 또는 전공 계열 협의회 등이 열릴 수 있다. WRK 의장은 사무총장, 의장단 임원들 그리고 전공 영역의 장(학과장 회의의 의장)들을 최소한 연 2회 이상 모이게 하여 담화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3. 財政

재단법인체로서 WRK는 사업 촉진을 위하여 私法的 자산체를 설립하여 1965년 노오드라인 베스트팔렌州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았다(소재지가 Bonn市이므로). 자산체는 세무 관청에 의하

여 공공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자산채는 이사진과 WRK 총회의 감독을 받는다. 총회는 예산을 심의하여 연방 정부에 제출하며, 이사진은 배당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할당한다.

WRK의 재정은 연방, 州, 국립대학이 아닌 대학의 회비, 국방대학 등에서 지원한 자금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자체 수입은 WRK 축진을 위한 재단이 자체 동산과 부동산을 운용하여 얻은 자금이다.

'86 회계 연도의 총 예산은 3,102,400DM(1DM=450원)으로 그 세입원은 州보조금 1,826,700DM, 연방 문교·학술성 보조금 1,184,300DM, 비국립대학의 회비와 국방대학 보조금 41,600DM, 기타 수입 49,800DM으로 총 3,102,400DM이다.

집행 내역은 사무처 비용, 이사회 행정비, 각 부서 활동비 1,544,800DM, 국제 활동 820,100DM, 편람·도서실·홍보 및 안내 737,500DM 등으로 총 3,102,400DM이다.

4. 歷史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9월 26일 영국 점령군의 권유에 의하여 중서부 독일 지역 대학의 총·학장들이 모여 북서독대학 총·학장 회의(Nordwestdeutsche Rektorenkonferenz)를 결성했고, 2년 뒤인 1947년 7월 18일 미국군 점령 지역인 남부 독일 지방에도 총·학장 회의가 결성되었다. 1949년까지는 서방 3국(미, 영, 불)이 점령한 지역의 대학 총·학장들과 대학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총·학장 회의의 회원 대학들이 '대학총회(Hochschultage)'란 명칭 아래에서 공동 노력을 했다. 소련이 점령한 지역(현재 동독)에서는 독자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1949년 4월 21일 서방 3국의 점령 지역내에 있는 대학 연합체는 '서독 대학 총·학장 회의(WRK)'를 결성했다. 여기에서 앞으로는 대학들이 국가 정책 기관들과는 함께 모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기를 결의했다. 이미 1948년 7월 2일 결성된 '州문교장관 회의(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가 있었으며, 각 州의 문교장관들은 이 WRK를 '국가 인정의 대학 총·학장 회의'로 인정했다.

이로써 1890년 프로이센의 대학 총·학장 회의와 1903년부터 1933년까지 28개의 대학 독일 총·학장 회의(부분적으로는 독일 대학 연맹으로서)의 전통이 다시 살아났다. 본래 이 협의회의 자율적 특성은 1936년 10월 20일 국가 및 프로이센 학술성의 승에 의하여 정지되었었다.

전후에 새로 시작된 WRK는 대학의 관심사에 대한 명실상부한 강력한 대표 기구로서 소임을 다했다. 처음에는 6개월마다 바뀌었던 대학 총·학장 회의의 대표가 1951년부터는 1년 임기로 의장이 직접 선출되었고, 1958년부터는 연임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1973년부터 2년간의 임기에 한 대학의 운영위원인 교수나 학장, 총장 등이면 누구나 총·학장 회의의 의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하였다.

1953년 괴팅겐²⁾에 사무총장실이 만들어졌었고 1956년에 본시로 옮겼다. 1962년 WRK는 본시에 자체 건물을 지었고, 1976년에 국제협력부, 이사진, 도서실 등이 새 학술 센터³⁾로 이전하였다. 1985년부터 도서실이 다시 본관 건물로 들어왔다.

총회의 사무를 지속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1953년에 3년 임기의 4명의 의장 보좌역이 생겼으며, 1968년 학생 운동 후 3명의 의장단으로 변경 설치되었다(의장 1인, 부의장 2인). 1973년에 2명을 늘렸고, 1984년에 1명을 늘려 5명의 부의장이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임기는 2년으로 단축시켰다.

이 WRK는 대학 제도의 연방적인 구조의 조적으로 처음엔 서베를린이 제외되어 10개의 州 대학 총·학장 회의로 구성되었으며, 나중에 11개 州로 되었다. 동시에 총회가 기능적인 면에서 축소되면서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80년에 정관을 개정하여 대표위원 이외에 州 대학

2) 니더작센州에 있는 동독 국경에 가까운 대학 도시

3) 본시의 동쪽 외곽 지역인 Bad Goddesberg에 세워진 학술 센터(Wissenschaftscenter)

총·학장 회의의 의장이 모두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WRK가 설립된 시기부터 학술대학에는 교수 자격 논문 심사 권리(Habilitationsrecht)⁴⁾, 대학 운영위원회 규정(Rektoratsverfassung), 박사학위 심사 권리(Promotionsrecht)⁵⁾ 등을 지니고 있다. 1970년부터 교육대학이 WRK의 정식 회원이 되었고, 이는 많은 교육대학들이 같은 도시에 있는 종합대학교와의 통합을 이루는 것을 쉽게 하였다.

1970년부터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에 대한 정치적 토론과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문제가 모든 대학들을 위하여 전개되었다. 1974년에 드디어 전문대학, 예술과 음악대학, 철학-신학대학, 교회대학, 국방대학(Bundeswehrhochschule에서 1985년부터 Universität des Bundeswehr로 개명) 등이 정식 회원으로 되었다.

WRK는 연구와 교수에 대한 대학의 기능을 촉진시켰다. 1947년에 독일 대학교류위원회(DAAD)가 설립되었고, 1948년에 독일 국민 장학 재단이 만들어졌으며, 1959년에 유럽 대학 총·학장 회의 창립, 대학교육 개혁, 대입 자격 시험 제도 개혁, 선발 제도 개혁과 대학 기본법의 개정, 박사학위 촉진법 제정, 중앙 대학 입학 허가 기관(ZVS)의 정관 기초 등 무수한 일을 했다. 특히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계속된 대학 기본법에 대한 개혁 운동은 괄목할 만한 업적이다. 이 개혁안에는 연구비 지급, 대학 인사 행정 제도 개선, 대학 학력에 대한 기준 등이 들어 있다.

국민 경제 발전의 둔화와 학생들의 게으름에 의한 대학 장기 체류의 폐습(최고 14년을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었음)으로 대학 수업 기간의 단축을 유도하는 조치(평균 대학 졸업 기

간은 예컨대 10학기내에 졸업해야 하는 학과목은 14학기였음), 재정 긴축 정책에 따른 갈등과 분규 해소, 학술 후계자 양성, 연구의 수월 능력, 대학 졸업자 실업 문제, 유럽 국제 공동 연구 등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5. 大學 發展 協助體制

앞 절에서는 WRK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대략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설명만 가지고는 대학 발전을 위한 WRK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 이에 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 및 의회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좀더 설명해야 하겠다.

서독의 대학 발전을 위한 협조 체제는 세 가지 관련 기구, 즉 연방 정부, 주 정부 그리고 WRK가 대등한 위치에서 제각기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WRK는 이미 설명했으므로 나머지 두 가지만 보충 해설한다.

먼저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 의회의 문화 정책 분과위원회가 대학 정책을 정치적으로 다룬다. 1969년까지는 연방 정부에 학술성(Bundesministerium für Wissenschaft)이 있었으나, 그후에는 교육 및 학술성(BMBW)으로 바뀐 문교 정책 부서가 연방 차원의 교육 정책을 정치적으로만 제안하고 있다. 이 연방 내각의 교육 및 학술성에는 연방 차원의 연방-州-교육위원회가 있다. 공식 약칭 BLK(Bund-Länder-Kommission)라 불리우는 이 기구는 1970년 6월 25일에 발족되었다. 독일은 11개 州로 되어 있는 연방 국가이다. 따라서 연방과 州 간의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항상 대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연방-주-교육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일방적인 의견 교환이 아니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대표들이 협의하는 기구로

4) 교수 자격을 얻기 위한 연구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한 후 6~10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자격 인정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교수(Professor) 자격을 준다. 이 교수 자격을 지닌 사람은 어느 대학에서 자기 전공 영역에 공개 채용 공고가 나면 이에 응시하여 심사 받은 후(3회) 총장이나 학장이 정부에 3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교수 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응시자 중 제일 우수한 1순위에서 교수 자격을 주면 이 사람은 평생 Professor 자격을 지니게 된다.

5) 독일 대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학술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뉜다. 전문대학은 3년제며 박사과정이 없고, 학술대학에는 박사과정이 있다. 박사과정이 없는 대학은 따라서 전문대학이다.

서 이 위원회는 각 주에서 1명씩의 대표와 연방 차원의 의장이 하나 있어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결정은 4분의 3이 찬성해야 의결되며, 의결된 사항은 찬성 표를 던진 주에만 해당된다.

BLK의 주요 임무는 우선 종합적 교육 제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연방과 주의 공동적인 총괄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1973년부터 3년간에 걸쳐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이 연방-주-교육위원회는 주 문교장 회의(공식 약칭 KMK, Kultusministerkonferenz)와 공동으로 대학 정책을 구상한다. KMK에는 별도의 학술 위원회(Wissenschaftsrat, 공식 약칭 WR)와 대학 건설을 위한 위원회(Planungsausschuss für den Hochschulbau)가 있어 여기에서도 대학교육 정책을 입안한다.

KMK는 각 주의 문교장관이 위원으로 만장일치로 모든 안건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1970년부터 실험 운영해 오던 통합학교(Gesamtschule)는 주의 일부 문교장관들이 정규 학교로 결정하는 데 반대하여 12년 후인 1982년에야 정

규 학교로 인정받았다. KMK의 의장은 각 주의 문교장관들이 순번제로 1년씩의 임기로 되어 있다.

연방 헌법에 의하여 교육의 모든 주권이 주 정부에 있는 독일의 대학 정책은 몇 가지 영역에 대하여는 연방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를 지니고 있다. 그 예로는 대학 졸업 규정, 시험 규정, 대학 입학 허가 기준, 직업 교육 제도, 장학금 규정(BAFÖG), 대학생 학적 교류(예를 들어 서베를린의 자유대학 어떤 학과에 다니는 A학생이 바이에른주 문헌대학의 같은 학과로 전학을 가려 할 때에는 바이에른주의 문헌대학에 A학생이 원하는 학과의 어떤 학생이 A학생과 동일한 조건—학기 및 졸업 목표 등인데 졸업 목표란 국가 시험, 디플롬 또는 마기스터—을 지내고 있으며 서베를린 자유대학으로 전학을 가고자 할 때에는 두 학생은 상호 자신의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보호되는 조치) 등이 있다.

WRK는 사립 단체이며 KMK와 BLK는 국립 기관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잘 협조되어 있다. *